Market Index / 26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감귤 평균경락가(5kg, 원)
▼ 2076.77	▼ 654.63	▼ 49.90	▲ 11.600
-26.84	-2.32	-1.53	+300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1USD	1238.80	1196.20	1EUR	1349.32	1296.68
100￥	1122.26	1083.66	1CNY	181.76	164.46

‘이주열풍’ 진짜 끝?… 두달 연속 인구 유출

1월 제주지역 전출자 1만274명·전입자 9990명
‘인구 순유출’ 1월 기준 2010년 이후 최대 규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연속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가 감소, 인구유출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제주경제 지표도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1월 국내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1월 중 제주 전입자는 9990명, 전출자는 1만274명으로 순이동 인구는 284명이 줄었다.

특히 1월 기준 제주인구가 순유출한 것은 2010년 1월 286명 감소 이래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내 전입자 8627명, 전출자는 8651명으로 순이동(-24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두 달 연속 순이동 인구가 감소세를 기록, 제주지역에 대한 이주열풍이 사그라지며 제주 땅에 대한 매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월별 순이동 인구는 적으면 100명에서 많으면 600명 선을 유지했다. 제주에서 한달 살기와 국제학교 입학 등 이주열풍이 불며 한때 월평균 1000명꼴로 제주에 순수하게 정착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최근 3년간의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는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으로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마련 부담을 비롯해 교통난, 환경오염 등 대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 제주를 떠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른 주택 미분양 사태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제주지역의 경제지표를 흔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12~27세의 유출이 심각했다.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24세가 305명 순유출되며 가장 많았다. 22세(-212명), 23세(-199명), 18세(-140명), 21세(-10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그나마 소폭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1월 한달간 전국 이동자 수는 6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만명) 감소했다. 반면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13만1105명으로 전출한 인구 12만7159명을 앞선다. 이에 따른 순이동 인구는 3946명으로 1월 기준, 2009년(3340명)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창립 50주년 한라신협 자산 6000억원 돌파

김명옥 이사장 “100년 미래 향한 힘찬 항해 시작”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라신협(이사장 김명옥·사진)이 자산 6000억원을 돌파하며 제주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김명옥 이사장은 “제주도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믿음으로 함께 걸어온 50년, 한라신협은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00년의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970년에 창립한 한라신협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13년 연속 흑자경영, 3.6%의 출자배당 실현, 경영실태평가 1등급, 신협중앙회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성과중심문화의 정착,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환원사업 등에 힘쓴 결과 제주 최초 2015년 종합경영평가 전국 대상과 2017년 공제사업평가 전국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라신협은 법원지점 목요 야간뱅크 운영, 삼화지점 토요업무 등 다른 금융권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금융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조합원 상조규약, 제휴 병의원 할인혜택, 문화센터 운영 등 다양한 조합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점심 나눔, 한방진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한라신협은 2월 현재 자산 6075억원 조합원 수 1만8000여명으로 5개의 영업점(본점, 연북로지점, 아라지점, 삼화지점, 법원지점)을 운영 중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실내체험시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도내 실내 체험시설 업종이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수목원 테마파크에도 찾는 사람이 감소하며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의 대상과 자격 요건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관광진흥기금은 특별융자 3000억원과 상환유예 2700억원 등 총 57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것으로 오는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내용을 보면 ▷당초 지원 자격에서 배제됐던 4성급 호텔 및 등급 갱신을 신청한 호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 ▷관광진흥기금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관광기념품점, 수상레저사업, 승마장업 등이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26일부터 관광진흥기금 방문 접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있다.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을 하면 방문날짜와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접수된 융자 신청액은 총 438건·670억원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지식재산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보유기술을 진단하고 특허를 발굴해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2020년도 IP나래프로그램 사업’의 참여기업을 정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업 후 7년 이내(또는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12개(상반기 7·하반기 5)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한도는 총 컨설팅 수행비 2500만원 이내이다. 문의 759-2555 또는 755-2554.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공포를 이용한 투자전략

“V-코스피지수·ETF 활용 반등 노려라”

주식시장이 공포에 물들어 있다.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24일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미국 S&P 500 지수도 이틀간 6.3% 하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2010년 이전에는 경기침체를 제외하면 이런 급락이 거의 나타난 적이 없었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미국증시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급락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S&P 500 지수가 이틀간 6% 이상 하락한 것은 5번이다. 당시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에 -20%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는 -10% 내외의 하락을 보였다. 그리고 이틀 연속 -6%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후로 하여 저점이 형성되었으며 추가적으로 2~3%정도의 조정을 보였다.

국내의 경우 미국증시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에 지역 감염이 국부적으로 시작되면서 충격을 받은 국내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내수주의 경우에는 감염 확산에 따른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수출의 경우에는 환율과 대외 경기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견조한 미국경기와 최근 중국의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한풀 꺾인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번에 V-코스피지수에 대해 소개한적이 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V-코스피지수를 통해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알고 투자에 이용할 수 있음을 얘기했는데 최근 26일 V-코스피지수는 25.32로 급등하였으며 공포 확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패닉에 따른 급락은 과거 사례에서 보면 일정 기간 뒤 높은 확률로 반등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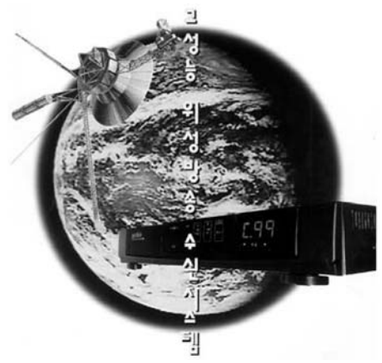
과거 20번의 사례를 보면 V-코스피 급등 당일 주가 바닥은 5번 정도였으며 이후 한달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2~3% 정도의 추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반등에 나섰으며 -10% 이상 추가 하락을 보인 케이스는 1건에 불과하다. 충분히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도 V-코스피 급등을 이용한 증시 매수의 시기로 잡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된다. 특히 이번 하락에 맞추어 과거 사례를 대입해 본다면 이번 하락 이후 증시가 1~2%의 조정을 받는 경우에 1차 진입시기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 분할매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데이터 분석… 패닉 따른 급락후 급상승
IT·반도체·4차산업 매수세 유입 가능성 높아

그렇다면 이번 V-코스피지수를 이용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면서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지가 중요할 것이다. 기존 상승세를 보이던 IT 업종 그리고 반도체, 4차산업 관련 업종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에 대한 선별이 어렵거나 불확실하다 판단이 된다면 지수형 ETF에 투자가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향후 시장 반등에 따른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으며 개별 기업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만큼 V-코스피와 ETF를 통해 이번 급락장에서 투자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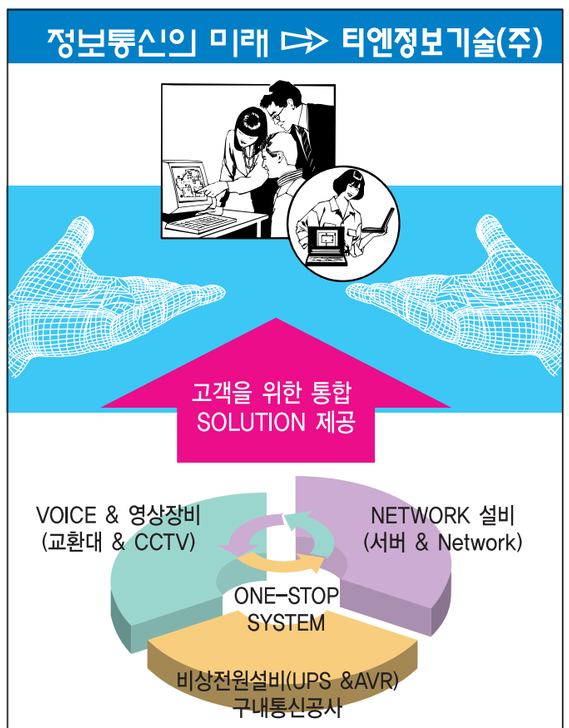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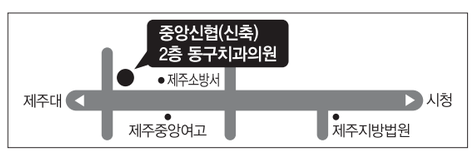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의 료 안 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 구 치 과 의 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제주도정 소식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우리마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는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www.jeju.go.kr/jejuwater/) 상수도정보에서 매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2020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3. 31.(화) 18:00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신청방법: 도청 성평등정책관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 지원내용: 2천만원(개소당 1천만원)
○ 문의: 064)710-6553,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